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2월 실업률 하락과 시사점

- 미 노동부는 2월 실업률이 전달대비 0.1%p 하락한 8.9%를 나타냈으며, 신규 일자리수도 19만 2천개 증가했다고 발표함.
 - 최근 많은 경기지표들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, 이에 따라 실업률이 9%대 이하로 하락했다는 사실은 경기회복 추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짐.
 - 미국의 실업률이 9%를 하회한 것은 2009년 4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며, 2010년 11월 9.8%에서 3개월 만에 실업률이 0.9%p 하락한 것은 198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기록됨.
 - 신규 일자리수도 공공부문 일자리수가 3만개 감소했으나 민간부문에서 22만 2천개 증가하면서 총 19만 2천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지난달 6만 3천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.
- 그러나 8.9%의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일자리수 증가 속도도 아직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.
 - 지난해 150만 명의 실업자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속도라면 현재 1,35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.
 - 또한 평균 시간당 수입의 경우 전달에 비해 1센트 증가한 22.87달러에 그쳤으며, 평균 주당 근무시간도 34.2시간으로 전달 수준에 머무르는 등 근로자의 소득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.
 -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민간부문 일자리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며,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인 오스틴 굴스비 또한 한 달간의 지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함.

(Washington Post 등, 3/4)